

정부, 4차산업 육성 일환으로 '중재진흥법' 만들어 경쟁력 확보 제9회 대한민국 중재인대상 시상식 개최 수상자들 이력 돋보여



이기수 (사)대한중재인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 Inc.

지난 1999년 출범한 (사)대한중재인협회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대체적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중재 제도를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다. 대체적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인 중재는 소송이 아닌 상호간의 타협을 중시하는 법적 해결 방법이다. 소송과 달리 문제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인이 조율을 맡아 문제를 해결한다.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중재인의 판정으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법정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대한중재인협회(이하 중재인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해 법조계, 실업계, 학계로 구분해 협회와 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해 '대한민국중재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대개 각계의 전문가들로 중재인협회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번 제9회 대한민국중재인대상은 중재인협회의 전신인 "한국중재인클럽"의 창립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여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선정위원의 만장일치로 실업계에서 이순우 전 대한상사중재원장, 법조계에서 최공용 법무법인화우 고문변호사, 학계에서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